

일주문



새로운한국국민운동 상임대표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5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대회에서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7일 고운사 선체협관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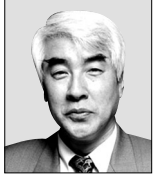
사찰 산사음식 강좌 서울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경내 사찰음식체협관에서 '산사음식 강좌'를 개최한다. (02)359-8410



영어명사 강의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6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풍경소리 대강의실에서 총 9회에 걸쳐 영어명사 강의를 진행한다. (02)736-5583



난치병 어린이 지원금 전달 이채원 BBS불교방송 사장은 6월 2일 '거룩한 만남'으로 모인 난치병 어린이 지원금 50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금강대·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5월 30일 금강대에서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기부 박범훈 前중앙대 총장은 5월 29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

원용중 총무원장 대행 진호 스님

前총무원장 성관 스님 일신상 문제로 사의



(사)대한불교원용중은 5월 19일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한 원용중 종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성관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총무원장 대행으로 부원장인 진호 스님 <사진>을 선임했다.

총무원장 성관 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총무원장직을 사임했다.

임원회의에서는 6월 18일 중국 하남성 원용사에서 봉행되는 원용중 종맥 전법법회 진행상황 등이 보고됐으며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 2의 성장도약기로 삼겠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인터뷰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올해를 제2의 성장 도약기로 삼겠습니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은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 이래 14년간 여성불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대사회 활동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2011년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구성원을 비롯해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건평 1천평의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 2011년 8월 입재식을 갖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금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후원자 1만명을 모집해 1인당 108만원씩 3년간 후원하는 캠페인과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539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약 9억 3천여만원을 모금한 상태다.

모연금으로 2012년 11월 전용 교육관을



2020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목표

6월 13일 자비나눔행사 진행

마련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승만경 강좌 △다문화봉사단 교육 △여성리더십 교육 △웰다잉 교육 등 여성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경연 원장은 “불교여성광장은 양성평등을 넘어 인류애로 한국불교 중흥으로 세계평화를 이끌 교류와 실천의 장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2011년 제1기에 이

어 불교여성광장건립 2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불교르네상스를 이끌어갈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은 30일 제2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13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자비나눔 문화행사 ‘마음 모아 함께’를 개최한다.

행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기획전시회, 문화행사, 기증품 전시판매,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동사설 특강과 명상요가 등이 진행되며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다도 퍼포먼스, 국악공연 등이 이어진다.

정경연 원장은 “앞으로 여성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연구, 교육, 수행, 봉사를 추진하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 개발로 전세계적 불교문화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따라서 불교를 바탕으로 인류의 정신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공간인 불교여성광장을 건립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40주기 열반대재 봉행

천태종,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2만 대중 운집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열반대재가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40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재오·송광호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춘광 스님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일불승의 자취이니 오늘을 상월원각대조사께서 열반의 시적(示寂)으로 여만 겁 중생을 공양하는 날, 불보살과 중생의 경계



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대조사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열반대재가 끝난 뒤 사부대중들은 오후 1시 30분경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궁에서 적멸공재를 지냈다. 김주일 기자

“불교문학에 새로운 활력 제공 할 것”

<한국불교문학> 30호 발간한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가 <한국불교문학> 30호를 발간했다. 이에 한국불교문인협회는 5월 31일 마포 다보빌딩 지하에서 기념법회 및 시상송회를 가졌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사진·봉화산 정토원장) 회장은 “1985년 설립된 이래 연 1회 서화집 형식으로 협회지를 발간하다가 2012년부터 계간지로 전환, 일년에 네 번씩 <한국불교문학>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30호 발간은 침체된 불교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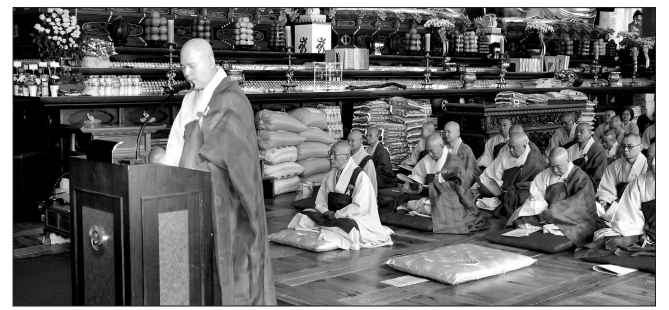
30호에는 시 23편, 시조 5편, 수필 3편, 명시 11편 등이 담겨 있으며, 지안 스님(통도사 반야암 감원)이 선별한 선시 14편도 실려 있다. 또한 청화 스님의 인터뷰도 특집으로 게재했다. 이밖에 3.1절 기념으로 열린 전국 만해백일장의 초·중·고 및 대학일부 장원 작품 16편도 들어 있다.

선진규 회장은 앞으로 회원 재정비, 신인 발굴, 청소년 문학인재 양성 등을 통해 한국 불교문인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문



화포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인상에 상급 수여 방식을 도입해 소양 있는 불교문학인을 발굴할 예정이며 준회원으로 청소년들을 가입시켜 기성세대와의 소통은 물론 젊은층 포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조계사서 도의국사 다례재



조계종 조계사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유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다례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인환, 혜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종회의장 항적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종도의 후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총지중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



불교총지중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법회가 5월 25일 총지중 총본사 총지사에서 봉행됐다. 개원법회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티베트 전통음악 연주자 카락 뽕바 체링의 음악으로 최경실 교수의 힐링 춤 공연과 마술사 정병구씨의 마술공연 등이 선보였다. (02)501-9035 김주일 기자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기념법회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이사장 박청운, 상임이사 서병영)은 5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인류 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및 설립기념 대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50여 종단 종정 스님들과 정재계 내빈,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이사장으로 청운 스님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또 총효사 회주 해공 스님의 대회사, 대한불교 일통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의 봉행사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과 의현 스님의 격려사, 대한불교진홍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의 세계불교도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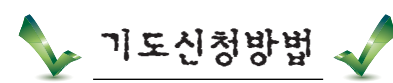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